〈공지사항〉

IFRS 중급회계 제11판 제8장 금융자산 중 예제 7 수정

제8장 예제 7(p.518)은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손상차손(환입) 및 다음 연도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AC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경우(해답 1)와 AC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해답 2와 3) 모두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손실충당금 잔액은 미래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로 표시되어야 타당합니다.

현재 예제 7의 물음 2와 3의 해답을 보면,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올바른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총장부금액과 손실충당금 잔액이 전술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예제 7의 물음 2와 3의 해답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예제 7의 물음 4를 20×2년 말에 실제 수취한 이자가 당초 예상한 현금 수취액과 다른 경우로 바꾸어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제 7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의 손상차손(환입) 및 이자수익 인식

갑회사는 20×1년 1월 1일에 을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는 않다. 사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액면금액 : ₩1,000,000
- 이자지급 : 연 3%를 매년 12월 31일에 후급
- 상 환 일 : 20×5년 12월 31일 일시상환
- 사채발행 시 유효이자율 : 연 5%

| 물음 |

1. 갑회사는 사업모형 및 사채의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한 사채를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갑회사가 AC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표를 작성하라.

2. 갑회사는 20×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1년 말에 AC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갑회사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2년부터 20×5년까지 매년 말에 수취할 이자의 현금흐름을 ₩10,000으로, 만기에 수취할 원금의 현금흐름을 ₩800,000으로 추정하였다. 갑회사가 AC 금융자산에 대해서 20×1년 말에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라.

3. (물음 2)와 관련하여 갑회사는 20×2년 말에 AC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하여 20×3년부터 20×5년까지 매년 말에 수취할 이자의 현금흐름을 ₩20,000으로, 만기에 수취할 원금의 현금흐름을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갑회사가 AC 금융자산에 대해서 20×2년 말에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라. 단, 갑회사는 20×2년 말에 이자 ₩10,000을 수취하였다.

4. (물음 3)에서 20×2년 말에 수취한 이자가 ₩12,000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다시 답하라.

5. 상기 물음에서 갑회사가 사업모형 및 사채의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한 사채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을 제외하고 손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물음 2) 및 (물음 3)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라. 20×1년 말과 20×2년 말 현재 사채의 공정가치가 각각 ₩650,000과 ₩800,000일 때 갑회사가 FV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20×1년 말과 20×2년 말에 해야 할 회계처리를 하라.

| 해답 |

1. AC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사채의 발행가액)
   = ₩30,000×4.32948(기간 5, 5%, 연금현가계수)
   + 1,000,000×0.78353(기간 5, 5%, ₩1의 현가계수)
   = ₩913,414

AC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조정표

일 자	유효이자(5%)	표시이자(3%)	장부금액 증액	장부금액
20×1. 1. 1.				₩913,414
20×1. 12. 31.	₩45,671	₩30,000	₩15,671	929,085
20×2. 12. 31.	46,454	30,000	16,454	945,539
20×3. 12. 31.	47,277	30,000	17,277	962,816
20×4. 12. 31.	48,141	30,000	18,141	980,957
20×5. 12. 31.	49,043*	30,000	19,043	1,000,000
	₩236,586	₩150,000	₩86,586	

* 단수 차이 조정

2. <20×1. 12. 31.>

①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 금 30,000 (대) 이 자 수 익 45,671
AC 금융자산 15,671

② 손상차손의 인식

20×1년 말 현재 미래 현금부족액(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한 금액) : 20×2년 말부터 20×5년 말까지 매년 이자수취 부족 ₩20,000, 20×5년 말 원금회수 부족 ₩200,000

20×1년 말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야 할 손실충당금 잔액

＝₩20,000×3.54595(기간 4, 5%, 연금현가계수)＋200,000×0.82270(기간 4, 5%, ₩1의 현가계수)

＝₩235,459

(차) 손 상 차 손 235,459 (대) 손 실 충 당 금 235,459

20×1년 말 재무상태표 표시(상각후원가의 순액 표시도 가능)

	20×1년 말
총 장 부 금 액	₩929,085
손 실 충 당 금	(235,459)
상 각 후 원 가	₩693,626

20×1년 말 현재 현금부족액 추정이 이후에 변동하지 않고 실제 이자를 당초 추정한 현금부족액만큼 적게 수취한다면 20×1년 말 손실충당금 ₩235,459는 매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조정표

일 자	유효이자(5%)	이자 수취 부족액	장부금액 조정	장부금액
20×1. 12. 31.				₩235,459
20×2. 12. 31.	₩11,773	₩20,000	₩8,227	227,232
20×3. 12. 31.	11,362	20,000	8,638	218,594
20×4. 12. 31.	10,930	20,000	9,070	209,524
20×5. 12. 31.	10,476	20,000	9,524	200,000
	₩44,541	₩80,000	₩35,459	

위의 장부금액 조정표에서 손실충당금의 매년 말 장부금액은 20×1년 말 현금부족액의 추정치가 이후 변동되지 않는다고 할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손실충당금 기말잔액이다. 예를 들어 20×2년 말 손실충당금 잔액 ₩227,232는 20×2년 말 현재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이며, 전기 말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 ₩235,459와의 차이만큼 20×2년 말에 이자수익을 인식할 때 조정한다(해답 3 참조).

3. <20×2. 12. 31.>

①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 금 10,000 (대) 이 자 수 익 34,681(1)
손 실 충 당 금 8,227(2)
AC 금 융 자 산 16,454(3)

(1) 20×1년 말에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693,626(20×2년 초 상각후원가)×5%＝₩34,681
(2) 해답 2의 손실충당금 조정표 중 20×2년 말 조정액
(3) 대차 일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은 해답 1의 AC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총장부금액을 의미함) 조정표 중 20×2년 말 조정액과 같은 금액이다.

② 손상차손의 인식

20×2년 말 현재 미래 현금부족액(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고려한 금액) : 20×3년 말부터 20×5년 말까지 매년 이자수취 부족 ₩10,000, 20×5년 말 원금회수 부족 ₩100,000

20×2년 말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야 할 손실충당금 잔액

＝₩10,000×2.72325(기간 3, 5%, 연금현가계수)＋100,000×0.86384(기간 3, 5%, ₩1의 현가계수)

＝₩113,617

(차) 손 실 충 당 금 113,615 (대) 손 상 차 손 환 입 113,615(4)

(4) ₩113,617－(235,459－8,227)＝(－)₩113,615(환입)

20×2년 말 재무상태표 표시(상각후원가의 순액 표시도 가능)

	20×2년 말
총 장 부 금 액	₩945,539
손 실 충 당 금	(113,617)
상 각 후 원 가	₩831,922

20×2년 말 현재 현금부족액 추정이 이후에 변동하지 않고 실제 이자를 당초 추정한 현금부족액만큼 적게 수취한다면 20×2년 말 손실충당금 ₩113,617은 매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조정표

일 자	유효이자(5%)	이자 수취 부족액	장부금액 조정	장부금액
20×2. 12. 31.				₩113,617
20×3. 12. 31.	₩5,681	₩10,000	₩4,319	109,298
20×4. 12. 31.	5,465	10,000	4,535	104,763
20×5. 12. 31.	5,237	10,000	4,763	100,000
	₩16,383	₩30,000	₩13,617	

4. <20×2. 12. 31.>

①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 금 12,000 (대) 이 자 수 익 34,681(1)
손 실 충 당 금 6,227(2)
AC 금 융 자 산 16,454(3)

(1) ₩693,626(20×2년 초 상각후원가)×5%=₩34,681
(2) 해답 2의 손실충당금 조정표 20×2년 말 조정액 ₩8,227에서 추가 수취한 ₩2,000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
(3) 대차 일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은 해답 1의 AC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총장부금액을 의미함) 조정표 중 20×2년 말 조정액과 같은 금액이다.

② 손상차손의 인식

20×2년 말 현금부족액의 현재가치(해답 3과 동일)=₩113,617

(차) 손 실 충 당 금 115,615 (대) 손 상 차 손 환 입 115,615(4)

(4) ₩113,617−(235,459−6,227)=(−)₩115,615(환입)

20×2년 말 재무상태표 표시(해답 3과 동일)

	20×2년 말
총 장 부 금 액	₩945,539
손 실 충 당 금	(113,617)
상 각 후 원 가	₩831,922

참고로 20×3년 말 이자수익 인식 분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현금 수취액은 예상대로 ₩20,000 가정)

<20×3. 12. 31.>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 금	20,000	(대)	이 자 수 익	41,596[1]
	손 실 충 당 금	4,319[2]			
	AC 금 융 자 산	17,277[3]			

(1) ₩831,922(20×3년 초 상각후원가)×5%＝₩41,596
(2) 해답 3의 손실충당금 조정표 중 20×3년 말 조정액 ₩4,319
(3) 대차 일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은 해답 1의 AC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총장부금액을 의미함) 조정표 중 20×3년 말 조정액과 같은 금액이다.

5. 공정가치 평가와 손상의 회계처리를 함께 할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회계처리를 먼저 한 후에 손상의 회계처리를 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해답 2 및 3과 회계처리가 다르다.

<20×1. 12. 31.>

①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 금	30,000	(대)	이 자 수 익	45,671
	FVOCI 금융자산	15,671			

②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차손의 인식

(차)	금융자산평가손실(OCI)	279,085[1]	(대)	FVOCI 금융자산	279,085
(차)	손 상 차 손	235,459[2]	(대)	금융자산평가손실(OCI)	235,459[2]

(1) 20×1년 말 이자수익 인식 후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913,414＋15,671＝₩929,085
공정가치 평가손익＝₩650,000－929,085＝(－)₩279,085(평가손실)
(2) 해답 2의 손상차손 인식금액과 동일하다. 다만, 대변이 손실충당금이 아니라 금융자산평가손실(OCI)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0×1년 말 금융자산평가손실(OCI) 잔액은 ₩43,626이다.

<20×2. 12. 31.>

①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 금	10,000	(대)	이 자 수 익	34,681[3]
	FVOCI 금융자산	24,681[3]			

(3) 해답 3의 이자수익 금액과 동일하다. 다만, 20×1년 말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현금 수취액과 이자수익의 차이를 모두 FVOCI 금융자산에서 조정한다.

②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차)	FVOCI 금융자산	125,319[4]	(대)	금융자산평가손실(OCI)	43,626[4]
				금융자산평가이익(OCI)	81,693[4]
(차)	금융자산평가이익(OCI)	81,693[5]	(대)	손상차손환입	113,615[5]
	금융자산평가손실(OCI)	31,922[5]			

(4) 20×2년 말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650,000＋24,681＝₩674,681
공정가치 평가손익＝₩800,000－674,681＝₩125,319(평가이익)
전기이월 금융자산평가손실(OCI) 잔액 ₩43,626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 ₩81,693을 금융자산평가이익(OCI)으로 인식한다.

(5) 손상차손환입＝(－)₩113,615(해답 3과 동일).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인식한 금융자산평가이익(OCI) ₩81,693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 ₩31,922을 금융자산평가손실(OCI)로 인식한다.